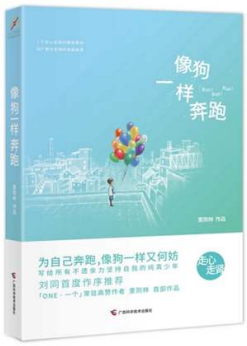
CHINESE TITLES



제목 :像狗一样奔跑

가제 :강아지처럼 달려라

저자 :里则林리저린

발행일:2015년 2월 1일

분량 :304

장르 :문학

<내용소개>

중국 신예작가 류퉁(刘同)이 최초로 서언을 쓴 작품, 인기작가 리저린의 작품집!

자기를 위해 질주하는데 강아지처럼이면 또 어떠한가!

인기작가 리저린의 첫 작품집으로써 독특한 시각으로 보는 세계, 구속받지 않는 놀라운 행실,어릴적 생활의 각종 회상, 성장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대는 간혹 저자의 냉혹함과 구속받지 않고 각 분야를 넘나드는 저자의 생각에 탄복할것이며 또한 그의 각종 짓꿎은 장난에 배를 움켜잡고 웃게 될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따스함과 감동을 느끼게 될것이다.
항상 만남과 이별과 동반하는 인생,옛날의 황당하고 구속없는 소년이 어떠한 경력과 사고(思考)를 통해 차분하고 너그러운 청년으로 되였는지, 당신은 그중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보게 될 수 있을것이다. 다른이들에게 출세할 날이 없다고 평가받은 당신, 노력은 하였으나 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당신, 이 세상 모든이가 당신을 부정해도 괜찮다. 우리가 아직 가야할, 갈 수있는 길은 멀고 머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 강아지처럼 집중하여 전진하라.

<저자소개>

리저린 1990년생이며 "좌우작업실"의 계약작가,[ONE·하나]의 인기작가이다.대학시절부터 작품을 써냈으며 <청년문적>,<독자>,<의림>,<시류신문>,<철사>등 잡지에 실리게 되였다."이상적인 청년 집결 블로그--이웃의 소리"는 십대작가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학기간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설립하여 개인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조회율이 천만을 돌파하였다.[ONE ·하나]에 <네가 영국으로 갔다>,<바람같은 자유>,<공기마냥,대지마냥>,<나의 왕국>,<너도소년이였다>등 문장을 발표하였으며 그의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때론 따스하고 때론 황당하며 때론 슬프다가도 곧바로 포복절도

하게 만든다.

그는 “사람마다 자기의 성장방식과 세계를 보는 시각이 따로 있다.희망컨대 우리 모두 귀먹이가 되여 맘속의 자신을 보호하길 바란다. 자기를 위해 질주하는데 강아지처럼이면 또 어떠한가.웃음속에 눈물 있고 따듯하며 황당한 이야기들이 그대의 옆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목차>

추천 프롤로그 길가의 인민페는 자주 있는것이 아니다

프롤로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쓰레기로 된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니였다

1장 강아지처럼 달려라
-네가 영국으로 갔다
-공기마냥,대지마냥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
……

2장 너도 소년이였다
-나의 왕국
-중경,중경
-손을 흔들며 모든 구름을 가져가다
……

3장 바람같은 자유
-바람같은 자유
-반역(叛逆)시기의 처마
-나는 원쑤가 한 사람 있다
……

4장 세상이 거꾸로 되였을 때
-백가지 생활
-소위의 세계 말일
-차단된 신앙
……

5장 길의 막바지에는 한장의 바다이다
-길의 막바지에는 한장의 바다이다
-옛적의 자기를 만나다
-오늘마다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

6장 그대가 황량한 곳에서 한송이의 꽃을 피여냈다
-그대가 황량한 곳에서 한송이의 꽃을 피여냈다

-한 미친 놈의 이야기

-한 바보의 이야기

……

가제 : 백화점은 재미있어
저자 : 시이신
발행일: 2014.12
분량 : 40 쪽
장르 : 아동그림책 (대만)

2006년 이탈리아 볼로냐 도서전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작가 쉬이신이 9년만에 선보인 신작

<내용소개>

남자아이는 엄마, 아빠와 백화점에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백화점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중에서도 남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것은 크게 입술모양이 그려져 있는 엘리베이터,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자 마자 아이는 엘리베이터로 뛰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레스토랑, 장난감 가게, 리빙코너등등을 다니며 물고기 친구와 놀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우주비행사가 되면서 상상력의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한참을 백화점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놀던 아이는 순간 깨닫게 되지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다는것을, 게다가 주변에는 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릴 적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거나 길을 잃어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 역시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바탕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쁜 사람에게 납치되면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없다고 울면 어떡해하지 라며 걱정하였던 작가는 부모가 된 후 부모의 마음과 본인의 어릴적경험과 작가의 상상력을 절묘하게 조희시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었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부모가 아이에게 조심히 가라고 일러줄 뿐 아니라 책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아이가 돌아다니며 재미있게 노는 공간은 각양각색의 채색표현으로, 각 층을 오가며 오매불망 아이를 찾는 부모는 단색으로 표현하여 비교하는 재미도 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펼침면으로 백화점 각 층의 재미또한 엿볼 수 있다.

<저자 소개>

타이베이 시립대학 시각예술연구소를 졸업하고 그녀의 첫작품 <4가지 소망> 2006년 이탈리아 볼로냐도서전 일러스트 전시전에 입선하였다. 본인은 아이를 매우 사랑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나 아이들은 본인을 무서운 호랑이 엄마라고 부른다. 본인은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 아이들은 잔소리가 심하다고 생각하며 작가 본인은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아이는

엄마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나 사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작가

<본문이미지>